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



도수 본지 논설위원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개인적, 기복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는 늘 못마땅했다. 내가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류의 현주소를 돌아볼 때 보다 근본적이고 영원한 어떤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확신에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교공부를 권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불교를 배운 사람들이 반드시 바람직하게 변모해가는 것 같지는 않았다.

불교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만심만 눈에 띄게 늘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향상되거나 남을 위한 보살행에 나서는 경우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이는 비단 신도를 뿐만 아니라 스님들에게도 해당되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왜 이런 공부가 신행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걸까?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전에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인가? 아니면 가르치는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아무리 공리를 해봐도 정답은 얻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나의 지론을 거두고 싶지 않다. 불교를 믿지 않거나, 믿어도 바로 알지 않거나, 알아도 잘 따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다가오는 것을 결코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요즘은 법구경의 한구절이 적힌 작은 액자를 내 방문 앞에 걸어놓고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듯 자기자신이 행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수지김 천도재로 원혼 달래다



이국평에서 피살된 뒤 간첩으로 불리는 오명을 받았던 수지 김(본명 김옥분)씨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천도제가 유족과 장용사 주관으로 8월 26일 충주 장용사에서 열렸다. 이날 천도제에는 국정원 일부 간부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간첩 가족이라는 누명으로 온갖 벌시와 감시 속에서 생활한 수지 김 가족들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4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장군속미

작년 대선출마 승려 사기죄로 구속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국민안 호국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갑수(54) 법륜사 주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8월 20일 구속됐다. 대선운동 당시 모 사찰 주지스님에게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국국회의원과 국무총리를 시켜주겠다고 속여 대선후보 등록금 형식으로 6억원을 받는 등 2000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88억원을 가로챘 혐의다.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은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모양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시공을 초월해서 목적을 돌우는데 이들이 난무한다. 반 백년 세월을 거뜨히 펴와서 질펀하게 판을 벌이고 있다. 해방 직후에 들 불처럼 번졌던 남남 분열과 좌우 대립 현상이 21세기에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다.

소설의 기본 에너지는 갈등이다. 역지로서도 갈등을 야기하여 서사구도를 만든다. 갈등이 없는 소설은 존재 가치가 없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개인과 운명 등등. 그런 토대 위에 고통스런 갈등이 설정되어야 그럴듯한 픽션이 된다. 갈등이 아슬아슬하게 첨예화되어 있을수록 소설의 재미는 증대된다. 갈등의 증폭을 위해서는 살인과 죽음마저도 불사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소설보다 더 뜨거운 가열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라는 깃발을 상대에게 찌러대며 겨누고 일전을 벌일 기세들이다. 빨리 도화선에 점화를 하라고 외치는 형국이다. 저마다 명분과 세력이 탄탄하다. 규탄대회, 성명전, 연방장 등 온갖 성토의 함성이 자욱하다. 극단적 이념 대립과 사회 갈등이 정치 불안과 계층간 대립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 동안 우리 사회의 깊은 속병일지도 모를 지역 감정, 지역 갈등이란 말이 이제는 오히려



불자 세상보기

이우상 소설가 · 대진대 문예창작과 교수

내 안에 있는 화살을 빼자

왜소해져버린 느낌이다. 어느 한쪽에 편입되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듯하다. 어느 단체 에라도 가입해야 불안이 해소될 것 같다. 수많은 깃발의 향연에 풍덩 몸을 던져야 시대를 사는 사명에 충실할 것 같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보(保)든 혁(赫)이든 그들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았다. 그래서 경계의 가르침을 설했다. "무엇인가에 내 것이라고 집착해 동요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의 모습은 메밀다. 물이 적은 개울에서 허덕이는 물고기와 같다." 덧붙여 설하시기를, "육신에

끌리고 소망에 불들린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견해를 초월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행하고 아는 대로 떠들어떨 것이다."라고.

인간 지혜의 산물 중에 하나가 상징, 비유 그리고 허구화의 능력이다. 그것들은 대리만족을 제공하고 갈등 해소의 역할을 한다. 소설은 그 중 가장 허약한 도구이다. 강한 도구는 스포츠이다. 전쟁은 에너지 없는 현실이고 스포츠는 상징화된 전쟁이다. 그러나 스포츠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제로섬게임이다. 옹기하는 절

대 승자와 소멸하는 절대 패자가 있을 뿐이다. 사람 사는 세상이 제로섬게임장인가. 절대선, 절대악의 대결장인가. 문제는 도끼이다. 태어날 때부터 입에 도끼를 물고 나오는 것이 인간이라고 붓다가 경고하셨던가. 그것을 쓰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이 지금 세대는 아닌가.

죽이고 할퀴고 쥐어짤 일이 뭐가 그리도 많은가. 소설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현실은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과장과 염색은 소설에서 필요한 문법이다. 소설에는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다. 현실에서는 준비운동부터 마지막 숨쉬기까지 모두 요긴한 동작이다. 누가 누구를 죽이고 살릴 일이 있을까.

지금쯤 전사가 아니다. 극렬한 전사에도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면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설하기를, "온갖 살아있는 것이 결국 장애에 부딪히는 것을 보고 나는 불안해졌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마음 속에 차마 볼 수 없는 번뇌의 화살이 박혀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상대에게 쫓겨 화살을 버리는 것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박혀 있는 화살을 빼내는 것을 우리 시대의 화두로 삼아야 한다.

본문(本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호주제 폐지 찬반논쟁

남녀일체평등, 제도개선 필요

Yes

이화(불교여성 개발원 사무국장)

사회 곳곳에 여성의 참여가 늘어나지만, 우리의 사회·문화적 의식과 제도적 장치들 속에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호주제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혼율이 증가하고 가족관계가 해체될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호주제가 존재하는 지금도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세계 2위로 선두를 다투는 실정이다. 문제는 변화하는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분출되는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념의 부재에 있다. 전통적인 문중, 가족의 정체성에 대한 것들은 사문서인 족보가 대신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과 현실 담지 못한 죽은 제도

또 호주제가 우리 고유의 전통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호주라는 말은 조선총독부가 일방적 조선화정책을 만들면서 사용했다. 조선 후기의 호적을 보면 지금처럼 당연히 아들이 호주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이 호주를 승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지금도 사회는 변화하고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행 가족법은 변화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법이 부계혈통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다섯 살 손자가 호주가 되어 집안을 이끌어가는 비현실적 상황을 연출한다면, 이것은 살아있는 법이 아니다. 여자, 이혼자, 소수자란 이유로 남성들의 어머니, 아내, 딸들이 차별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결국 모두가 고통 받는 것이다. 이것이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No

구상진(참여불교재가연대 자문위원)

호주제란 가계계승제도를 호주 개인의 권리의무의 형태로 표현한 법률형식이다. 호주제 폐지는 직접적으로는 호주를 없애는 것이지만, 호주를 통하여 연결되던 집안이 모두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남녀평등의 구실로 가계계승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남연방>에서 인도 마가다의 왕이 밭지국을 정복할 계획을 세우고 부처님께 지도를 구했을 때 부처님은 "밭지국민은 밭사람을 공경하고 조상의 사당을 보존, 예법대로 제사를 지낸다"며 정복 될 수 없다고 설했는데, 이를 보더라도 선후대간의 유대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가족제도 근간 흔드는 폐지는 안돼

또 호주제가 일체의 잔재라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 왜냐하면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1870년대에 성씨를 만들었고, 일제시대 이전에 이미 한민족에게는 성씨와 가문이 존재했으며, 호주제는 장부 형식만이 도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불가에서는 부처님과 조사들의 가르침에 따라 선조의 천도의식을 행하고, 현세에서의 불행한 가족관계는 전생의 업보로 인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기존 가족법규에서 이혼자나 혼외자의 어려움을 배려한다는 구실로 종래의 전통 가족문화 전체를 적대시하고 이들을 위주로 가족법 전반을 변경하는 것은 옹졸할 수 없다. 호주제는 아름다운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이므로, 문제부분을 개선해야지 결코 폐지해서는 안 된다.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와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이에 호주제 존폐론자들이 주장하는 찬성과 반대의 근거는 무엇이며, 불교전계에서는 호주제 문제의 골격을 이루는 남녀평등 문제를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보았다. <정리=오유진 기자>

경전에서 본 남녀평등

경전에서는 남녀평등으로 축약되는 호주제 폐지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제시하고 있을까. <대살차니경자 소설경>에서는 "세상에는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는 관습이 있지만 부처님은 남녀간의 차별을 두지 않으며, 다만 불성을 아는 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라며 남녀의 구분이 중요치 않음을 강조했다. 또한 "남녀는 일체 평등하다. 하늘은 아비이고 땅은 어미이므로 천지가 낳은 것이니, 무슨 다를 것이 있으랴"고 <보문품경>에 제시, 남녀를 평등하게 간주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불성 아는 것이 가장 존귀" 출신성분 개치지 않아

불교가 처음부터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파생된 계급의 모순을 지적하고 나선 점, 교단에서 출신성분을 개의치 않았다는 점과 어떠한 출가승인되고 초기 불전에서 깨친 여성들의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불교가 근본적으로 남녀는 물론 인간, 나아가 중생의 평등을 실현하는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그러나 <사분율>이나 <법화경> 등에는 남녀평등을 의식케 하는 사건들이나 표현들도 상당 수 있다. 하지만 경전이란 시대를 뛰어넘는 열린 내용이나만큼 광범위하거나 이해의 차이를 넘어선 해석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현정 스님의 우리말 염불참선 그리움의 노래. 그리움의 노래 3,692글자 + 선근인연가 824글자 + 부모은중가 996글자 + 불전참회가 623글자 + 회향산회가 752글자를 모두 합해 6,887글자로 한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분당 125글자를 염불했습니다. 55분 동안 장엄하고 아름다운 염불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한권의 책 6,887글자는 모두 염불테이프에 녹음되었습니다. 그리움의 노래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법문! 이와 같이 신명나는 염불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하기척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혜천법사.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혜천법사. 책자 내용: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계의 상지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혜천법사. 책자 내용: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이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나신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 단체주문환영. 법보시 하실 분은 주소 알려주시면 직접 우송 신청전화 (061)843-8822 금산정사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1334-9490, 334-9491 야간: 031706-3060